



(사진제공: 포천시)

신년축사

아침은 온다



안 옥 수
(사진: 제3회 문학주간)

왕방산의 청정한 바람소리로
우리가 여기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

이제 우리의 삶속에서
아픈 뜻을 알아내며
청성공원 소나무를 알아야 할 것은
꿈방이 난 세상을 꽃들로 다시 짓고
우리의 옷은 구절초의 풀을 들어야 하니
화목한 그곳에 들을 채워야 하는 것은
변두리 길가에도 꽃말을 가꾸어야 하는 것은
따뜻한 마을에 터를 잡고 살아야 함이라
따뜻한 마을에 터를 잡고 살아야 함이라
따뜻한 마을에 터를 잡고 살아야 함이라

이슬 물은 삼짍이
새로운 꽃말을 세우는 일이다

포천인이며
키 재기 높음에 나서기 보다는
영리한 발걸음에 다투기 보다는
서로 만나 응대들을 풀어야 함이니
푸른 약속을 위하여
편 가르기 산술은 버려야 한다

위대한 펜의 언어여
누가 말하라
넘어진 집초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한해천이 도도히 흘러가게
금이 간 길거리들 가슴으로 고쳐가며
굵어진 다리는 있고
같은 빛장은 풀어 주며
아름다운 물감으로
수를 놓아
모두가 하나 되게
살아가는 까닭을 말해야 한다

우리들이여!
새날에는

社 告

불우이웃돕기 창구

본지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직접 성금을 본지에 접수하거나 아래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동이체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2006년10월31일부터 2007년11월28일까지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성금을 기탁하신고마운 분들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것은 고마움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성금이나 물품을 받으신 분들도 아래와 같이 밝혀서로 들고 사는 정신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금을 불우이웃돕기 창구로 계좌 입금하신 분들은 아래 문의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품을 접수하고자 하는 분들도 미리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으로 서로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성금 및 물품접수내역

- 포천신문 자원위원회 일동 1,000,000(특별기탁)
- 박노현 용아삼우 대표이사 1,000,000(특별기탁)
- 백관영 전 정심장학회 회장 200,000(특별기탁)
- 김경현 조사위원회 고문 200,000(자동이체)
- 강수동 동천장학회 이사장 200,000(자동이체)
- 송창봉방집 210,000(특별기탁)
- 김영숙 태을갤러리 100,000(특별기탁)
- 권혁주 포천제일교회 목사 100,000(자동이체)
- 유재철 100,000(자동이체)
- 함명숙 100,000(자동이체)
- 박병식 이동맛갈비 대표 50,000(자동이체)
- 박근식 50,000(자동이체)
- 강우자 늘봄꽃화원 대표 20,000(자동이체)

· 송우리지역 노년연습장 모임 김한성 회장 및 회원일동 100,000원 (월 정기이체)

- 원인노래방 대표 김영철
- 원 노래방 대표 강수남
- 삼 노래방 대표 정종민
- 오아시스 노래방 대표 정동국
- 광문 노래방 대표 김진희
- M·S노래방 대표 김한성
- 퀵 노래방 대표 정수환
- 초콜릿 노래방 대표 이민철
- 2차 노래방 대표 하준자
- 유행가 노래방 대표 채경순
- 돌리 노래방 대표 김영찬
- 코러스 노래방 대표 이재정

불우이웃돕기 문의 031-542-1507 계좌: 농협 585-01-015241 (주)포천신문사

신년사

삶의 질 높이는 指導者 필요하다



최 호 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

다사다난했던 2007년 정해년을 보내고 새해 2008년 무자년을 맞이하여 포천신문 독자여러분가정에 반박이 깃드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2007년은 여러 가지로 혼란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의 고공행진에 서민들의 고통이 더해졌고 뜻하지 않은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정부의 현실을 무시한 부동산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입 수능시험 등급제를 도입하여 혼란을 야기시키더니 급기야 수능문제 출제과목의 허술함이 두 개의 답을 인정해야 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무엇하나 만족할만한 일이었다는 여론은 야당의 후보를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습니다. 그리고 2008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새해에는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서민도 잘 살고 잘사는 사람도 잘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렵게 일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체가 대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중소기업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량취해버린 돌 듯 경기도 또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남부지역에 집중된 투자와 배려에 늘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기북부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적극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포천시와 연천군을 깊이 분석하여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포천신문은 이같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포천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론을 수렴하고 조성에 나갈 계획입니다. 포천시민 여러분과 재경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포천신문 독자여러분!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는 바램입니다. 특히 포천시의 경우, 2008년도에 총선과 자치단체장 보궐선거 등 선거를 두 번 치러야 합니다. 광복할만한 발전과 큰 성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시장직을 사퇴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후보로 출마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사퇴해 공석이 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포천시민들은 향후 포천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요한 선거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포천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포천시가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포천시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고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능력,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 사물을 제대로 볼 줄 아는지 등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포천신문은 후보들의 검증을 위해 2008년 초부터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포천시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 포천시의 발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져야 합니다. 포천시민들의 대체적인 특성은 가진 자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직책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에 매우 약한 것이 바로 이곳 포천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대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못 가진자에 대한 무시와 냉대도 심하다는 사실입니다. 직책·권력·돈을 갖지는 못했지만 이 시대를 제대로 평가하고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을 이 시대 지도자로 선출하여 포천시를 바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드레스룸 · 주방 하드웨어 부품 생산

미래형 최첨단 제품만을 연구·생산하는 동성사



▲A-1현대형 전동식 배면형 식기캐치대 (상품명 오르내리미)



대표이사 윤이용



▲전동식 식기캐치대(상품명 오르내리미)

근면

성실

창조